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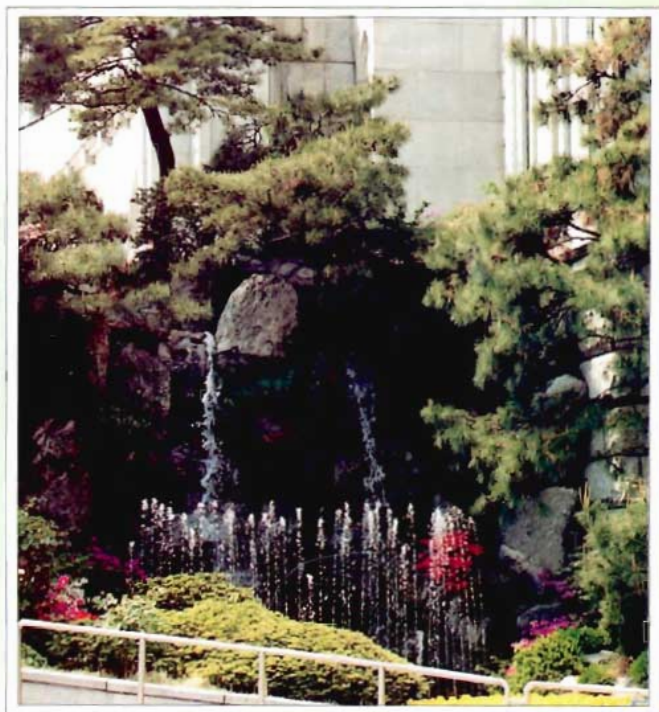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도행전



대한예수교
총회
장로회

4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도행전

충현교회 5대 목표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지역사회 봉사



표지 설명 / 만물이 악동하는 계절이다. 봄날 같이 따사로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감사하며, 도처에 만발할 꽃들의 향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내는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때 말씀 안에서 참된 희망가지시길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따뜻함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들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남성도 구역예배 모임이 교구별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온 구역예배가 이번에는 남성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균형있고 힘있는 모임으로 성숙해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자라가는 구역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는 구역장님들과 부지역장님들, 그리고 3월 18일부터는 남성도 구역장님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일에 힘써 동참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과 더불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으로 인해 더욱 힘있는 나날을 보내게 될 성도님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구역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누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임목사 김성관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충현의 만나

1998년 4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사도행전 서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누가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로서 '의사'(골 4:14)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많은 전도여행에 동행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곳곳에는 '우리'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16:10). 그리고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끝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딤후 4:11).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누가복음 1:3-4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함으로써, 데오빌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연구자의 마음으로, 또 역사 기록자의 자세로, 정직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7장, 8-12장, 13-28장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용된 구약성경들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 사도들의 증거와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능력 등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구원의 도를 담아 전할 질그릇으로써 교회들이 이곳 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연대는 대략 63-64년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의 흐름

1:1-8:4	예루살렘에의 증인들	11:19-12:25	안디옥교회의 설립과 헤롯의 핍박
1:1-2:47	교회의 설립	13:1-28:31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3:1-8:4	교회의 성장	13:1-14:28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8:5-12:25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	15:1-35	예루살렘 공의회
8:5-40	전도자 빌립	15:36-18:22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9:1-31	사울의 개종	18:23-21:16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9:32-11:18	베드로의 사역	21:17-28:31	바울의 로마여행

“...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10:28)

고넬료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10:2)”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은 수천 년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과 편견을 깨뜨려야만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나눌 수 없다는 전통에 눌러 있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편견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15절)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28절)는 고백으로 그 환상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자기의 온 집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정한 복음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며, 이방에게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편견이 복음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10:44)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과 기쁨을 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43절은 복음의 내용을 간결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선포하면서, 부활의 그 주님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셨음을 (42절)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 즈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환상의 결론이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동일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에 임하신 성령! 그것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라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에게로 열려지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고, 그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들을 결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방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11:18)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서도 일단 성령의 증거가 명백할 때 그들이 얼마나 주저없이 복종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은 베드로가 잘못된 조처를 취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유대인의 종교적 뿌리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투쟁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로마 백부장을 도운 베드로의 행위는 ‘침략군의 협조자’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담담하게 진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두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같은 베드로의 증언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과 보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증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열려질 대규모의 이방을 향한 전도 사역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11:26)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는 안디옥이 어떻게 이방인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박해를 피해 유대를 빠져 나온 신자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채워지면서 두드러진 이방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곳이 안디옥이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이방인의 사회에서만 신자들에게 붙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기치 않은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대표자를 보내게 되었고, 여기에 뽑혀진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유대인 형제들을 돕는 구제헌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이방 사회에서 얻어진 제자들의 별칭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천국일꾼을 온전히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12:1)

예루살렘에 박해의 새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도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 하지만 우리는 교회사의 벽초부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다’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34, 37절의 실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은 노기등등하여 무고한 과수꾼들을 처형하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그를 신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우쭐한 마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죽고 말았습니다. ‘충이 먹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온 무리들은 언제나 제거되어온 반면, 승리한 말씀의 행진은 한 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살아 계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 / 271장 본문 / 행 12:25~13:3

·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3)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
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로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흩
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번째 교회이며 이방 전도의 근거지가 되
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에 전달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으
며 동시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돌아오자 다시금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
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감동시키시자 교회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온 교회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
수하여 바나바와 바울 등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드디어 복음이 땅끝
까지 전달하게 되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분을 앞세우는 자가 맡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열심
이 있는 자가 맡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소
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를 섬기게 하소서. ③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찬송 / 389장 본문 / 행 13:4-12

*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 (13:12)

ㄷ 디어 바울의 위대한 선교여행의 첫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들어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행 4:36).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교인들 중에 구브로인들이 있었습니다(11:20). 이러한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이 첫번째 전도여행의 첫번째 지역을 구브로로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말고도 지리적으로 구브로는 바울 일행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어차피 지나게 될 곳이었습시다.

이들은 구브로섬을 횡단하며 전도하던 중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도달하였습니다(6절). 이곳에서 그들은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게 됩니다. 박수란 마술사란 뜻이지만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이방종교 숭배와 관계가 있는 마술쟁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합니다. 아마도 그는 마술을 통해 자신이 신을 부리는 사람으로 행세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다가 바울의 저주에 소경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은 때로는 이와 같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㉑(13:49)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보다 훨씬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그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곳에서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공적인 첫번째 설교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택함 받고 또 애굽땅에서 구출받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 중에는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14:7)

바울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13:46)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치 않음으로 마음에 시기가 생겨 악한 감정을 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종들에게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복음 전파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만큼 극진히 이들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하여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과 영광이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 ” (15:9)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행하는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등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여 이일에 대한 신학적인 결정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격인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경험을 말하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으로 깨끗케 되며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등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의 염려는 해결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찬송 / 276장 본문 / 행 15:36~16:5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15:39)

예루살렘 공의회를 받은 바울 일행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으나 계속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전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결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중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른 지역에 세운 이방 교회들을 돌아 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하였으니,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시에 도중에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행 13:13) 그를 불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하여 선교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들의 친척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구브로로 돌아가 전도하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롬 8:28). 인간의 분열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불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복음이 확산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6)

바울은 아시아에 남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대신에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9절)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14절). 그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집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15절). 그녀는 바울을 청하여 좀더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바울을 그녀의 집에 유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가정을 구원했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오묘한 역사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님의 오묘한 역사로 많은 영혼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③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소망을 이웃에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 (16:26)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는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미를 드렸습니다(25절). 죄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불렀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홀연히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26절). 잠을 자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간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문책을 받는 것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27절).

자결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28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은 간수는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간수의 첫 일성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31절) 하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권속,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베뢰아 사람은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 성경을 상고하므로』(17:1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생애는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빌 3:7-8).

바울은 베뢰아 사역을 감당하며 핍박받고 배척 당하고 있었습니다(1-9, 13절). 그런데 베뢰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바울에게 크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11절). 신사적이란 말은 ‘공평하다’, ‘고상한 마음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만 옳은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편견없는 태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함을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은 복음의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받은 후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깊게 묵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뢰아인들이 복음의 진가를 정치적,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을 표준으로 신앙을 정립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신앙을 정립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17:30)

아덴은 기원전 5세기경에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찬란한 업적을 이룬 도시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과 철학에 대한 열정을 고려하여 거기서부터 주제를 끌어내어 설교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올바른 신관을 정립한 메시지입니다(22-26절). 바울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로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한 아버지 안의 한 혈통으로 묘사함으로써 아덴인의 자만심을 꺾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온갖 잡신들을 위한 신상이나 신전들이 처처에 즐비했으며, 아덴인들은 순전히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완전성, 자기 충족성, 무한성 등을 역설함으로써 인간의 패역한 생각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두려는 시도를 일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밝혔습니다(27-28절).

한걸음 더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29-31절). 결론적으로 바울은 신을 우상과 같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 할 날을 작정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상황에 맞도록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항상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 (18:10)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가야의 수도이며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헬라의 대도시로서 헬라문화가 화려하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항구도시가 그러하듯이 고린도에도 온갖 타락 행위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 세워졌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수천명의 여인들이 이곳에 오던 자들과 매음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2절). 훗날 그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한 동역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를 밝히 증거했습니다(5절).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훼방했지만 그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보가 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며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약속대로 친히 지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진리를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 주시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 전파자들을 끝까지 지켜 주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 굳게 하니라』(18:23)

고린도에서 헬라 전도의 마지막 진지를 구축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감하고 안디옥을 향해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세번째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거쳐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에 걸쳐서 보여 주고 있는 제3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 에베소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18절). 그때에 그들은 구약성경은 물론이고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고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에 아볼로는 겸손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26, 27절).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를 찾고 또한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열심을 다해서 듣고 전하였습니다(26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더욱 능력있는 사역자로 변하였고, 그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고전 1:12).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철학이나 학문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19:5)

에 베소에는 아볼로의 가르침에 따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18:24, 25).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참된 복음을 깨달은 후에 고린도 지방으로 갔지만 에베소에 남아 있던 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4절)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방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성령세례였지만 구약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세례를 강조할 때에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 가게 되는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책을 모아서 불태우게 되는 등 주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진리가 흥왕해졌습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단순한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며 …”(19:26)

본 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들과 충돌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영향력은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 전각(27절)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서 한 면의 길이가 120m이고 다른 면의 길이는 60m로 솔로몬 성전의 3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의 총 본산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근간을 형성하는 은장색조합의 영향력은 에베소에서 가장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유하자 생활에 위협을 느낀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방의 토속종교를 논하면서 논쟁에 빠져 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대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논쟁은 거품과 소모를 일으키나 단순한 복음의 선포는 성령의 검이 되어 역사를 일으킵니다. 싸우려 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힘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었을 때에 ‘검을 다시 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온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20:1)

본 문은 약 3년간에 걸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재방문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는 약 10개월 가량 걸린 여정이었지만 본문은 짧은 몇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틴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지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준비시켰습니다(롬 5:25-32, 고전 16:1-4). 이와 같은 사역은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며 동시에 예루살렘교회로 하여금 이방 교회들의 생동하는 신앙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바울 혼자서 이룬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 사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실한 이방인 동역자들의 협력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아론과 훌로 하여금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힘쓰며 물질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선교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동역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20:28)

바울의 교회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하고 땀을 흘려 세운 교회들에 대한 사랑을 ‘첫날부터 지금까지’(18절), ‘모든 겹손과 눈물’(19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 가르치고’(20절), ‘회개와 ... 믿음을 증거’(21절) 등의 표현들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교회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28절)라는 한 마디 말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엄숙하고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함께 고통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교회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엄숙함이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교회 사랑의 동기와 정신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알리면서, 앞으로 교회에 닥칠 환난을 내다보면서 깨어 돌보라고 권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세속화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를 자기 생활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 때문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주님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21:13)

이 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바울을 전송하는 그들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하여 너무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픈 얼굴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는 강력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두로지방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울이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가 바울을 방문하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 매면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강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자 합니까? 그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13절).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저없이 주님의 일로 달려가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내 앞에 길이 열려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21:20)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고, 바울은 그동안 주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이방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염려하여 바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탁이란 곧 예수 신앙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수만 명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강하게 고수하려드는 자들로서, 이들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바울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 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이들의 조언과 충고를 앞에 두고 우리는 바울의 어떤 행동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외식을 꾸짖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그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형제들의 조언에 따라 결례를 행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이 행위가 믿음만을 주장한 자신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결정이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에서 주장한 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는 자기 희생’의 정신에 따른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신을 예루살렘의 상황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21:31)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충고는 별다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정작 소란과 위협을 일으킨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27절). 이들이 바울을 상대로 소란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고자 한 일차적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곧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이방인으로 더럽혔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29절).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상 바울에게 그토록 적대적으로 달려들었던 이유는 이전부터 바울에 대하여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자기들 중심의 편견이 그들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31절). 아가보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예상(행 21:1-14)에 걸맞는 극도의 위협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란처럼, 수다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채 바울을 없애라는 몇 사람의 선동에 휩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행 19:32).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처신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천부장에게 소란스런 무리들을 향하여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39절). 그에게 주어지는 변론의 기회는 곧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22:6)

바울은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임한 복음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덤벼들던 무리들이 바울이 히브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람도록 조용한 경청자들이 되었습니다(22:2). 이제 바울은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큰 빛’(6절)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빛은 기세등등하였던 핍박자 바울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바울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빛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주공격 대상자였던 그리스도의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11절). 이제까지 그가 주장해온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자마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고후 4:6).

‘큰 빛’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놀람도록 인상적인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이제 ‘빛’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지와 편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옛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으로, 빛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무섭습니다. 때로 그것은 언어와 행동의 폭력으로 노골화되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빛으로 드러나는 자는 담대합니다. ‘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빛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주변에 드러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하니”(22:28)

하 나남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냈다는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겸손도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채찍으로 바울을 심문하고자 하였는데 이 채찍 끝에는 금속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서 맞으면 살이 패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폐인이 되는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도하게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고자 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들은 로마인을 결박한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으로 신분을 밝힌 것은 위기의 순간을 탈출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한 번 바울은 아주 중요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로워야 하는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11)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른 부패한 사람이라고 공격하는데 사실 본문에 소개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린다면 성직을 가장 더럽힌 사람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십일조를 가로채는 부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류의 사람 앞에서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특유의 기지를 발휘합니다. 공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활의 문제를 개입시켜서 공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결국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심문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에 연단된 바울이라도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과 적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지칠 수 있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가는 길은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계 선교를 향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고난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 당신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24:15)

대 제사장 아나니아가 선택한 더둘로는 전문가답게 로마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요’에 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마치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통치에 악영향을 주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 이유는 바울과 같이 다니던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을 통해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바울은 논리적이며 지혜롭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이며 무리를 선동한 일이 없음을 말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물증도 없이 송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송사받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일로 자신이 송사를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이었고 바울 역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당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소서. ②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25:11)

신 임 베스도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도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빈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문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으로서 공정한 심문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심지어 신변에 위협이 임할 만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데에는 신변의 보장, 공정한 판결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끝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의도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울을 넘기고자 하는 베스도 총독의 뜻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피의자의 신분이었지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의자 바울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26:23)

바울은 먼저 자신을 심문하는 아그립바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변증합니다. ‘제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신흥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멀리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억압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심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하고 세속에 연단된 그들의 심령에 타격을 줄 만큼 강렬하고 논리적이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과 인류의 소망,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늘의 권세로 담대히 아주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완악한 심령은 도전받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② 4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5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아서 서문

느헤미아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바사(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Artaxerxes)의 술관원(왕 개인의 자문위원에 가까운 직위)으로 있던 중, B.C 444년 경, 제3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을 밟은 남은 자 무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총독에 재임했는데, 한 번은 12년 동안 계속되었고(5:14), 두번째 재임은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13:6). 그는 일차 귀환 즉시 백성들을 격려하여 허물어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단 52일만에 성공적으로 재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들의 삶의 갱신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느헤미아 자신의 경건한 영적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 갱신을 주도했다면, 느헤미아는 총독으로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재건과 말씀에 기초한 생활의 개혁을 주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갱신에 말라기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아서는 B.C 5세기 중반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종교 사회적인 배경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인 사실들을 알려 줍니다. 본 서의 1장 1절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의 원저자가 느헤미아라는 사실은 틀림없으나, 본 서가 히브리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더불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은 최종 편집자를 에스라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과 같이 느헤미아서의 초점도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느헤미아는 9:1-10:39 사이에서 언약 갱신의 의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벽의 성공적인 재건 과정을 통해서 면면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

제1부 성벽의 재건(1:1~7:73)

1. 성벽재건을 위한 준비(1:1~2:20)
 - 1) 무너진 성벽에 관해 들음(1:1-3)
 - 2) 느헤미야의 기도(1:4~2:8)
 - 3)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2:9-11)
 - 4) 성전재건을 위한 준비(2:12-20)
2. 성벽의 재건(3:1~7:73)
 - 1) 건축자들 명단(3:1-32)
 - 2) 대적자들(4:1~6:14)
 - 3) 재건의 완료(6:15-19)
 - 4) 조직정비와 계파별 명단(7:1-73)

제2부 백성의 회복(8:1~13:31)

1. 언약의 갱신(8:1~10:39)
 - 1) 율법의 해석(8:1-18)
 - 2) 언약의 재확립(9:1~10:39)
2. 언약에 복종(11:1~13:31)
 - 1) 백성의 정착(11:1-36)
 - 2)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등록(12:1-26)
 - 3)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12:27-47)
 - 4) 백성의 회복(13:1-31)

제 1 과

느헤미야(1) 진정한 기도

찬 송 / 483장

읽을 말씀 / 느 1:1-2:20

공부할 말씀 / 느 1:1-11

함께 읽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20년(B.C 445년 경) 겨울(기슬르월은 12월에 해당), 페르시아의 수산궁(아닥사스다왕의 겨울궁전)에서 자기동생 하나니(7:2 참조)로부터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에스라 9-10장 참조). 더 기가 막힌 소식은 B.C 538년에 파괴되었던 성벽이 여전히 보수되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1:4).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했고(2:1-6),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는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2:7-9).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소식을 경계하는 무리들이 등장하지만(2:10),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2:8 후반절),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케 하시리라(2:20)는 강렬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향한 그의 발걸음에는 후퇴함이 없

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성벽을 돌아봄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2:11-16),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함으로 성공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2:17-18).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4-5절)?
2.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기도의 전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되는 '찬양'과 '고백', 그리고 '간구'를 찾아보십시오(4-5절, 6-7절, 10-11절).
3. 느헤미야의 기도 어느 부분에서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엿볼 수 있습니까?
4. 그의 '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11절)?
5.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8-9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당연하나 자주 망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확신을 위해, 듣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기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2. 당신의 기도는 균형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편입니까? 치우치는 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과 저지른 실수들을 드러내는 '고백'과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간구' 중 어느 부분에 치우치는 편입니까?
3.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를 현실적으로 주관하는 자는 왕이었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통치보다 더 명백한 '현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8절 하반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4.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호소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신세한탄에 호소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제 2 과

느헤미야(2) 섬기는 지도자

찬 송 / 431장
읽을 말씀 / 느 3:1-7:73
공부할 말씀 / 느 5:1-19

함께 읽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사역을 분담하는 등 세밀한 계획을 요구하는 막대한 공사였지만, 느헤미야는 능히 감당해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의 질투적인 조소에도 불구하고(4:1-3)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유다 전 지역의 성읍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의 형태는 철저한 분업이었습니다. 일곱 개의 문들(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의 마흔 구역이 재건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계속되면서 일꾼들은 점점 지쳤고, 상대적으로 원수들의 위협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흉년과 더불어 재정 문제에 실패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서는 빈부간, 관리와 평민간의 갈등 상황이 돌출하였고(5:1-5), 이 틈을 탄 산발랏의 방해공작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6:1-19). 그러나 마침내 성벽은 52일만에 완공되었고(6:15),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모범과 인내는 원수들의

모락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보상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6:16).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성벽 재건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5:1-5)?
2.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3절)?
3. 느헤미야는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6-7절)?
4. 6-7절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십시오.
5. 느헤미야가 귀인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자세히 살피면서 당신의 말로 정돈해 보십시오(8-18절).
 - * 책망과 설득 -
 - 명령과 경고 -
 - 모범의 제시 -
6.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손길은 무엇입니까(19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공동체 내부에서 금전적인 문제, 빈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원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양편에서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들에 의해서 문제는 더욱더 꼬이기 쉽상입니다. 자칫 어설픔게 중재자로 나섰다가 오히려 관계만 불편해지고, 없어도 좋을 상처가 깊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중심에 계획'하고(7절)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한 후에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는 2장 11절 이하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는 것'은 '생각없이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신에게는 상호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꼼꼼히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의지 대상은 명백히 하나님이셨습니다(19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헌신적인 모범(12-18절)을 보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구역의 일꾼으로서 당신은 어떠합니까?

제 3 과

느헤미야(3)

말씀과 나

찬 송 / 500장

읽을 말씀 / 느 8:1-10:39

공부할 말씀 / 느 8:1-12

함께 읽기

성벽이 완공되었으므로 이 귀한 공동체는 이제 율법이 정한 대로(레 23:24)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살기로 서약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큰 과업이 끝난 후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지는 일은 의미심장합니다. 성벽 재건은 엘룰월(유월) 이십오일에 끝났고(6:15), 이 의미있는 모임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칠월 일일에 거행되었습니다(8:2).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그 동역자들의 해석을 통해 백성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한 후, 이들은 율법책에 명한 바에 따라서 초막절을 즐기지켰습니다(8:18). 초막절을 지킨 후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사람들의 인도를 통하여(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구약성경 9장 6절에는 에스라가 기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금식(9:1)과 회개(9:2, 26-36), 그리고 간구(현재의 고통을 아뢰. 9:32, 37)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9:38). 이 기도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격을 재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한 것을 기록으로 만들고 거기에 서명했습니다(9:38, 10:1-27).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율법책 듣기를 청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8:1)?
2.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8:3, 5-6)?
3.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8:7-8)
4.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백성들의 최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8:9 상반절) 그들의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8:12) 이러한 반응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까?(8:9-11)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말씀 듣고 깨닫기'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말씀 듣기'의 결과는 대단히 아름답

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고, 깨달음에 따른 회개와 기쁨이 교차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대체로 말씀 운동의 주도권은 지도자들의 몫이었고,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대다수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말씀 운동이 소멸해가고 있고 성도들은 진실된 영적 각성에 따른 기쁨 대신 알팍한 말씀 적용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와 우리 구역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오늘본문에서 보게 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심 어린 태도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습니까?

2.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차적인 목적은 '깨달음', 곧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됨' (8:12)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들의 최초의 슬픈 반응이 '기쁨의 표현'으로 바뀌기 위해서도 역시 설명에 따른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할 때, 나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다루어줄 '적절한 본문 찾기'에 골몰합니까? 아니면, 실로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를 갈망하십니까?

제 4 과

느헤미야(4)

성전 안에 들어온 원수의 세간살이

찬 송 / 339장

읽을 말씀 / 느 11:1-13:31

공부할 말씀 / 느 13:4-9

함께 읽기

11장부터는 7장 4절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느헤미야 중심의 이야기 (회고담)가 계속 이어집니다. 11장 초두에서는 새 성벽을 쌓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칭하는 것을 통해(11:1), 성 안에서의 거주가 특권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이주한 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재배치 받은 거주지로 옮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로 배치되어 이사하는 사람들과 당대의 제사장 및 레위인의 명단이 12장 26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나열됩니다. 그리고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는 완공된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 행렬을 지어서 성벽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봉헌식의 모든 분위기는 '능력과 안전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12:43).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을 잠시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수 도비야가 성전에 세간을 들고(13:4-7), 안식일에 돈을 벌러 장사에 나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13:15-22). 또한 잡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23-31).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참조, 2:10,19 / 6:17-19)
2. 도비야는 어떻게 해서 성전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13:4)
3. 도비야의 세간이 들어간 방은 본래 어떤 방이었습니까?(13:5)
4. 느헤미야는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했습니까?(13:7)
5. 느헤미야의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13:8-9)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암몬사람이요 느헤미야의 적대자인 도비야와 타협한 것은 그가 유다의 귀인들과 줄이 닿아 있는 자이고, 자주 내 통했을 뿐 아니라(6:17), 유다의 많은 유력자들과 동맹을 맺은(6:18) '정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유력자들은 도비야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6:19). 우리 대다수는 '금력과 권세'에 약한 자들입니다. 꽤 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권세자들을 비난하다가도 권세자의 호감과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면 즉시 여당적이 되곤 합니다. '세속의 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이토록 가볍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어떤 태도와 노력으로 '나쁜 타협에 굴하지 않는 깨끗한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2. 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런 일은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악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심히 근심' (8절)했다는 말은 '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고전 4:1-2). 지금, '자신과 세상에 대한 성공'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이에서 문제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와 행동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